

데 이 콤
천 리 안

F A X 서 비 스

지정수신인 : 박원순변호사

수신 : FAX/8225229994(박원순변호사)
 수신 : !KR/DACOMHS/CHOLLIAN//J1116
 송신 시각 : 94/07/21 15:21
 수신 시각 : 94/07/21 16:10
 메시지 ID : 0000135512
 제목 : 청와대에 보내는 항의서

송신자 : J1116 (윤미향)

*** 보도의뢰서 ***

- 본회는 어제, 20일, 청와대앞에 정신대 할머니 58여명과 태평양유족들 18여명, 본회 대표 및 회원 16여명이 모여 김영삼 대통령께 일본정부의 아시아교류센타기금안을 백지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대표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대 할머니들과 본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게해산시켰습니다. 이에 본회는 아래와 같이 항의서를 발송하고, 관계자의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

한 국 정 신 문 제 대 책 협 의 회

서울시 중구 강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100-391

전화 : 02)263-2802 전송 : 02)263-2803

정대협 : 제 94 - 31 호

1994. 7. 21

수신 : 김영삼 대통령 귀하

참조 : 김정남 수석비서관

제목 : 7월 20일, 청와대 면담요구 불응 및 강제해산에 대한 항의건

본회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보상의 매듭방침으로 언론에 공표한 [아시아교류센타기금안]을 심히 우려하며, 지난 7월 18일,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과의 면담을 팩스로 요청하였습니다. 면담의 목적은 쿠라야마 일본 수상이 방한하여 김영삼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을 할때 전후처리 차원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언급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일본정부의 아시아교류센타기금안에 대한 백지철회요구를 원하는 우리들의 입장을 긴급히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 20일, 오후 2시 우리들은 청와대 분수대앞에 모였고, 그 곳에서 청와대 경비대원로부터 보호아닌 보호를 받으며, 대통령께 우리들의 입장을 전달할 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만날 수 있더라도 수석비서관이라도 아니린, 여수담당 비서라도 우리의 대표를 면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5.8군 정전때처럼 청와대가 감히 국민들이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성역'은 아니지 않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은 여전히 '성역'인채 일본군'위안부'생존자 할머니들과 본회 회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당장 차에 실어 강제해산시켰습니다.

할머니들은 58년 동안의 고난과 침묵 끝에 우리민족이 자주권을 제대로 되찾아서 우리와 같은 고난과 수치를 후손들은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역사의 증언자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현재까지도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전체규모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사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배상은 할수없다는 공식적 입장을 일관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아시아교류센타기금]안으로 군위안부 문제들을 은폐, 축소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에 할머니들은 본회와 함께 김영삼 대통령께 일본정부의 [아시아교류센타기금]안은 백지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측은 대통령께 의사를 전달하려고 한 그분들의 최소한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짓밟아 버린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청와대측의 무례한 태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1. 우리는 청와대 비서들의 태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비서진들과 면담요구자들간의 오랜시간동안의 합의권에 사회담당 비서를 면회하

